

중국 대학교육개혁의 동향과 전망

● ● ● 박종배 | 한국교원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사회주의에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한 1990년대 개혁 이후의 중국은 고등교육체제 또한 변화와 개혁의 요구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에 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일류대 건설을 목적으로 강력한 대학교육개혁이 추진되고 있다. 여기서는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중국의 특수한 상황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학교육개혁의 주요 방향 및 동향과 전망과 함께 향후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들을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1990년대 이후 개혁·개방이 본 궤도에 진입하며 사회주의 시장경제가 안정적으로 발전해 나가자 중국의 고등교육체제 또한 심각한 변화와 개혁의 요구에 직면하게 되었다. 계획경제시대의 고등교육 관리체제와 교육모델은 더 이상 시장경제의 발전이라는 새로운 환경의 수요에 적응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의 대학교육이 과연 어떤 길을 향해 나아가야 할 것인가는 이미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었으며, 대학교육의 개혁문제는 중국 사회의 가장 시급한 현안과제 중 하나로 간주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92년 이래 중국에서는 ‘공건(共建)·조정(調整)·합작(合作)·합병(合併)’을 기치로 전국적 범위에서 강력한 대학구조개혁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세계 일류대학 건설’을 목표로 한 ‘211공정’과 ‘985공정’ 등의 대규모 프로젝트가 가동되고 있다. 아울러, 학교기업과 대학과기원(University Science Park)을 중심으로 산학협력을 강화하고, 이른바 ‘독립학원(Independent College)’의 형태로 국립대학의 일부 단과대학을 민영화하는 등 대학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정책들이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그동안의 개혁성과를 바탕으로 대학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한 ‘질량공정(質量工程)’을 가동하여 대학교육의 소프트웨어 측면에 대한 개혁도 시도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에서는 1990년대 이래 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일류대학 건설을 목적으로 강력한 대학교육개혁이 추진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먼저 중국 대학교육개혁의 주요 방향에 대하여 살펴본 뒤, 대학교육의 개혁을 위하여 중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들의 현황과 향후 전망에 대하여 논의해 보고자 한다.

I. 중국 대학교육개혁의 주요 방향

1949년 사회주의 신 중국 성립 이후 중국에서는 1952년에 단행된 대학·학과의 구조조정을 통

하여 중앙집중적인 고등교육체제를 건립하였다. 하지만 계획경제시대의 고등교육 체제는 개혁·개방의 진전과 함께 새로운 환경에 부합하지 못하게 되었고, 1985년 중국 공산당 중앙에서는 ‘교육체제개혁에 관한 결정’을 공포하기에 이른다. 특히 1990년대 초에 이르러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자리잡아 가면서 이전의 낙후된 고등교육체제에 대한 개혁에 가속도가 붙게 된다. 1990년대 초반부터 강력히 추진되고 있는 중국의 대학교육개혁은 대체로 다음의 다섯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① 고등교육기구 설립·운영체제의 개혁으로서, 대학의 설립·운영주체를 국가나 지방정부에서 사회 각계, 외국인 또는 단체 등으로 확대하여 기존의 국공립대학 위주의 고등교육체제를 사립대학, 중외 합작대학 등이 공존하는 새로운 체제로 재편하는 것이다. ② 고등교육 투자체제의 개혁으로서, 국가재정 투입을 위주로 고등교육을 운영하는 체제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경비를 조달하는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③ 고등교육 관리체제의 개혁으로서, 국가와 성급(省級) 정부가 양급(兩級) 관리체제를 구축하여 고등교육 관리의 책임을 분담하는 것으로, 국가의 거시적인 정책적 지도 하에 성급 정부가 통일적으로 조정하는 합리적 관리체제를 수립하는 것이다. ④ 대학 내부 관리체제의 개혁으로서, 대학이 법치주의에 입각하여 자율적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법인(法人) 실체가 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⑤ 학생 모집과 졸업생 취업제도의 개혁으로서, 학생 등록금을 징수하고 정부·사회의 각종 학비보조제도를 시행하며, 기존의 분배방식을 탈피하여 국가의 지도와 협조 하에 졸업생과 고용기관이 쌍방향으로 선택하도록 하는 새로운 취업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II. 중국 대학교육개혁의 동향과 전망

1990년대 이후 ‘과교흥국(科教興國)’을 기치로 추진되어온 중국의 대학교육개혁은 한 마디로 ‘일류대학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1998년 5월 강택민 총서기가 북경대학교 개교 100주년 기념식 치사를 통해 세계 일류대학 창건의 필요성을 강조한 이래 중국에서는 ‘일류대학 건설’이 대학교육개혁의 최대 목표이자 화두가 되었다.

1. ‘211공정’과 ‘985공정’

일류대학 건설을 위한 중국의 대표적인 국가 프로젝트는 ‘211공정’이다. ‘211공정’은 “21세기를 대비하여 세계적 수준의 100개 일류대학과 중점학문 분야를 육성한다”는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프로젝트이다. 이 구상은 1980년대 초 문화대혁명 기간 동안 폐허가 되다시피 한 고등교육을 재건하기 위한 원로들의 건의에서 비롯되었다. 즉, 1983년 6월 무한(武漢)에서 개최된 고등교육 관련 회의에서 4명의 원로교육자(남경(南京)대학 명예총장 광아명(匡亞明) 등)가 중앙정부에 “50개 정도의 대학을 국가 중점대학으로 육성하자”고 한 건의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원로들의 건의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결실을 보지 못하던 중점대학 육성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에 들어서이다. 즉, 1990년대 초 국가교육위원회(현재의 교육부)에서 ‘211공정’ 실시를 구체적으로 기획하였고, 1994년 「중국 교육개혁 및 발전 강요(中國教育改革與發展綱

要)에 '211공정' 관련 내용이 정식으로 포함되었다. 국무원에서 "211공정을 통하여 약간 수의 대학이 21세기 초에는 국제 일류대학의 학술 수준에 접근하거나 도달하도록 해야 한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하게 된 것이다. 이후 10여 년 동안 '211공정'이 본격 가동되면서 9·5, 즉 제9차 5개년 계획(1996~2000년)기간을 거쳐 2003년까지 전국 95개의 대학이 '211공정' 대상대학으로 선정되어 정부의 집중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1998년 5월 중국 정부는 일류대학 건설을 위한 또 하나의 국가 프로젝트인 '985공정'을 가동하게 된다. 즉, 1998년 5월 2일 이강청(李崗淸) 부총리가 '세계대학총장논단(世界大學總長論壇)' 개막식 연설 중, "다음 세기에는 우리도 일류의 대학이 세계 일류대학의 행렬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1998년 5월 4일 강택민 총서기가 북경대학 개교 100주년 경축대회에서 "(사회주의)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도 세계 선진 수준을 구비한 약간 수의 일류대학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른바 '985공정'이 가동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하여 1998년 12월 14일 교육부에서 제정한 「21세기를 대비한 교육진흥 행동계획(面向21世紀教育振興行動計劃)」에 "약간 수의 세계 선진 수준을 구비한 일류대학과 일류의 일류학과(즉, 학문 분야)를 창건한다."는 목표를 명시하고 1999년 9월 '985공정'이 정식으로 가동, 그 첫 지원대상으로 칭화대학, 북경대학, 남경대학, 복단대학, 상하이교통대학, 서안교통대학, 중국과기대학, 하얼빈공업대학, 절강대학 등 9개 대학을 선정하였다. 1999년부터 2007년 현재까지 선정된 제1기와 제2기 '985공정' 대상대학의 명단은 <표 1>과 같다.

현재 중국에서는 '211공정'과 '985공정'의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자평하고 있다. 즉, 최근에 발표된 세계 대학순위와 세부지표 상에서 중국의 일부 명문대학들이 세계 일류대학과의 격차를 많이 좁혀가고 있는 것이 뚜렷하게 보인다. 실제 중국의 일부 명문대학들은 가까운 시일 내에 세계 일류대학에 진입하기 위한 청사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일례로, 중국 제1의 명문대학으로 꼽히는 칭화대학의 왕대중(王大中) 총장은 2003년 3월 29일에 거행된 '일류대학 건설의 이론과 실천 학술토론회'에서 칭화대학의 세계 일류대학 건설 시간표를 공개한 바 있다(中國教育報, 2003년 3월 30일 보도). 왕대중 총장은 소위 "3차의 9개년 계획기간 동안 3

<표 1> 제1-2기 '985공정' 대학 명단

제1기(1999 ~ 2003)	제2기(2004 ~ 현재)
中國科技大學, 南京大學, 復旦大學, 上海交通大學, 西安交通大學, 浙江大學, 哈爾濱工業大學, 南開大學, 天津大學, 東南大學, 華中科技大學, 武漢大學, 廈門大學, 山東大學, 湖南大學, 中國海洋大學, 中南大學, 吉林大學, 北京理工大學, 大連理工大學, 北京航空航大大學, 重慶大學, 電子科技大學, 四川大學, 華南理工大學, 中山大學, 蘭州大學, 東北大學, 西北工業大學, 同濟大學, 北京師範大學, 中國人民大學, 中央民族大學	中國科技大學, 大連理工大學, 復旦大學, 上海交通大學, 同濟大學, 重慶大學, 浙江大學, 山東大學, 吉林大學, 中山大學, 華南理工大學, 蘭州大學, 南京大學, 東南大學, 中國海洋大學
총 33개 대학	총 15개 대학

*자료 : 중국 교육부 홈페이지 "985工程學校名單" 참조.

보로 나누어 세계 일류대학의 행렬에 진입한다(三個九年, 分三步走)”고 하는 발전계획을 소개하였다. 이에 따르면, 1994~2002년까지의 지난 9년이 제1보에 해당하는 단계로, 종합성(綜合性) 연구형(研究型) 대학으로 발전해온 과도기적 시기였다면, 2003~2011년까지의 9년은 제2보에 해당하는 단계로서 비약적 발전을 통하여 세계 일류대학의 대열로 뚫고 들어가는 역투의 시기가 될 것이며, 2012부터 2020년까지의 9년은 제3보에 해당하는 단계로서 총체적으로 세계 일류대학 건설을 완성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시기가 될 것이라고 한다. 최근 중국 대학의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 이 원대한 계획이 실현될 날이 그리 멀지 않아 보인다.

2. 대학 합병

중국에서의 대학 합병은 고등교육체제의 전반적 구조조정과 함께 위에서 살펴본 일류대학 건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예컨대, 고등교육체제의 구조조정을 통하여 새로운 환경에 적합한 효율적인 고등교육체제를 수립하는 것과 함께, 일류대학 건설을 목적으로 중점 육성하고 있는 대학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들 대학에 군소 단과성 대학을 흡수·통합하는 방식의 대학 합병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에서 구조개혁차원의 대학 합병이 강력히 추진되기 시작한 것은 1992년부터이다. 1992년 3월 5일 진강시직업대학(鎮江市職業大學)과 진강교육학원(鎮江教育學院), 강소성광과전시대학(江蘇省廣播電視大學) 진강분교(鎮江分校)가 진강시고등전문과학교(鎮江市高等專科學校)로 합병된 것을 시작으로 하여 중국에서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전국적 범위에서 대규모·대량의 대학 합병이 진행되었다. 1992년 이후 연도별 합병 현황을 정리해 보면 1992~2002년까지 총 733개의 대학이 합병에 참여하여 288개의 합병 대학이 탄생하였다. 평균 2.55개의 대학이 하나의 대학으로 통합된 셈으로, 연도별 합병 현황은 <표 2>와 같다.

중국의 대학 합병은 대체로 2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보완형 합병’으로서, 일류 종합성 대학을 건설하기 위하여 특정 대학을 중심으로 여러 계열의 단과성 대학들을 합병하여 거대 종합대학을 성립시키는 유형이다. 둘째는 ‘동종(同種)대학 합병’으로서, 주로 특성화된 단과성 대학들이 해당 분야·계열에서의 핵심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종 대학들끼리 합병하는 유형이다. 전체적으로 보아 현재 진행 중인 중국의 대학 합병은 첫 번째 유형, 즉 ‘보완형 합병’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992년 이후 전개되고 있는 중국의 대학 합병은 중국의 현대 고등교육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띠고 있다. 중국의 근대적 고등교육체제는 1949년 신 중국(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 크게 2차에 걸쳐 대대적인 구조개혁을 단행하였다. 1952년에 시작된 전국적 범위의 ‘대학·학과

<표 2> 연도별 대학 합병 현황(1992 ~ 2002년)

구분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계
합병 참여대학수	54	22	29	51	46	41	78	72	221	50	69	733
합병 대학수	20	9	11	21	17	16	29	28	85	23	29	288

※ 자료 : 중국 교육부 홈페이지 “1992年以來高校合併情況”(http://www.moe.edu.cn/highedu/gxtz/gxhb_20030417.xls) 자료 참조.

구조조정(일명 '원계조정(院系調整)')이 제1차 구조개혁이라면, 1992년 이후 단행된 대규모 대학 합병을 통한 고등교육체제개혁이 제2차 구조개혁이라 할 수 있다. 2차에 걸친 고등교육구조개혁은 상반된 성격을 띠고 있는데, 대체로 말하여 정반대 방향의 구조개혁 조치라고 할 수 있다.

1952년의 제1차 구조개혁은 이른바 '통재(通才)교육(general education)'을 비판하며 시작된 것으로 전문인재의 양성을 중시하는 구 소련의 대학체제를 모델로 단행된 것이다. 사회주의 중국 성립 이전의 전통적인 '통재교육'과 문·법계열을 중시하고 이·공계열을 경시하던 경향을 개혁하기 위하여 단행된 대규모의 대학·학과 구조조정은 종전의 종합대학을 해체하여 문리대학이나 공과대학과 같은 단과성(單科性) 대학으로 분리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반면, 개혁·개방의 심화와 함께 1992년 이후 단행된 제2차 대학구조개혁은 조각조각 분할되어 있던 기존의 단과성 대학들을 합병하여 하나의 거대한 종합성 대학으로 재편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제1차 구조개혁이 고급 전문인재의 양성을 위한 특성화된 단과성 대학의 발전과 대학의 지역별 균형 발전이라는 일정한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각 분할적인 고등교육체제·학과와 전공의 중복 설치·대학분포의 불합리성 등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더 이상 새로운 고등교육 환경에 적응하기 어렵게 되자 1차 시기와는 정반대 방향의 제2차 구조개혁을 단행하게 된 것이다.

3. 산학협력의 강화: 학교기업과 대학과기원

산학협력 또는 산·학·연·관 연계체제의 구축은 국가혁신체계(NIS)의 핵심요소 중 하나이다. 중국에서도 이러한 인식 하에 산학협력을 통한 첨단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및 산업화를 중국 경제의 구조조정과 성장방식 전환의 중심고리로 삼고 있다. 아울러 산학협력은 2020년까지 약간 수의 세계 일류대학과 일군의 국제 수준 대학을 건설하고자 하는 대학교육개혁 비전을 실현하는 데에도 관건적 요소로 간주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의 대학들은 적극적으로 산학협력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대학이 산학협력을 추진하는 방식은 크게 학교기업과 대학과기원(大學科技園, University Science Park)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대학들이 학교기업을 설립·운영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말부터이다. 개혁·개방과 함께 중국 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과학기술의 발전과 이의 산업화가 절실히 요구되었고, 이러한 필요에 부응하여 대학들이 자신들이 보유한 고도의 과학기술과 우수한 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첨단 과학기술 기업을 육성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후 중국 대학의 학교기업은 1993년에 국가교육위원회(교육부)와 국가과학위원회(과기부) 등이 연합하여 '대학과학기술산업공작회의'를 개최한 이후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그 뒤 10여 년 동안 중국 대학의 학교기업은 놀라운 속도로 성장하여 북경대학의 방정(方正, Fangzheng), 청화대학의 동방(東方, Dongfang)과 자광(紫光, Ziguang), 복단대학의 복화(復華, Fuhua) 등 중국의 첨단 산업을 선도하는 중국 굴지의 대기업들을 키워 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초기에 학교기업을 중심으로 전개되던 중국의 산학협력은 대학과기원(University Science Park)의 등장과 함께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맞이하게 된다. 대학과기원은 대학이 보유한 첨단 과학기술과 우수인력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기술혁신과 기술이전, 연구성과의 산업화, 기업보육활동 등을 전개하는 첨단 테크노파크 또는 사이언스파크이다. 중국의 대학과기원은 특정 연구 중심대학이 주축이 되어 관련 산업계와 긴밀한 연계를 구축한 가운데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 하에 모

험 투자를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투자를 자금원으로 하여 설립·운영되고 있는 산학협력의 메카로서, 1990년대 이후 빠르게 발전하여 중국 첨단 산업의 성장과 미래 성장동력의 창출을 이끄는 선두 역할을 하고 있다. 아울러, 대학과기원은 산·학·연의 연계체제를 통하여 세계적 수준의 연구 중심형 대학을 육성함은 물론 정부의 재정 투입에 일방적으로 의존하던 기존의 고등교육경비 조달·투자체제를 혁신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대학과기원이 연이어 생겨나고 또 상당한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되자 1999년 말부터는 국가차원에서 '국가급 대학과기원'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예컨대, 1999년에 교육부와 과기부의 주관 아래 15개의 대학과기원을 시범기지로 선정하여 1년 동안의 지원과 평가과정을 거쳐 2000년 5월에 정식으로 22개의 대학과기원을 국가급 대학과기원으로 선정하게 된 것이다. 대학과기원이 국가급 대학과기원에 선정되어 국가차원의 행·재정적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전국대학과기원공작지도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평가를 통과하여야 한다. 이 위원회에서 대학과기원을 평가하는 데에는 혁신 환경, 혁신 자원, 연구·개발성과의 생산력 전화(轉化)와 과학기술기업 보육실적, 지방 정부의 지원실적 등이 중요한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중국에서는 지난 2000년에 처음으로 22개의 국가급 대학과기원을 선정한 데 이어 2003년에 추가로 20개를 선정하고, 2005년에 다시 8개를 선정하여 2006년 현재 국가급 대학과기원 숫자는 모두 50개에 이르고 있다. 대학과기원은 1개의 대학이 독자적으로 설립·운영하기도 하고, 몇 개의 대학·연구소(원)가 공동으로 설립·운영하기도 하는데, 50개의 국가급 대학과기원에는 현재 총 112개의 대학이 참여하고 있다.

4. 국립대학의 민영화 실험: 독립학원

개혁과 변화의 와중에 있는 중국의 대학교육에서 최근 주목할 만한 실험 하나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독립학원'(獨立學院, Independent College)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대학의 등장이다. 이른바 '독립학원'은 특정 국립대학이 소속 단과대학이나 분교를 민간기업 등과 합작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사실상 민영(民營) 4년제 대학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명칭에 '독립'(independent)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모체가 되는 대학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독립법인(獨立法人)이기 때문이며, '학원'(college)은 민영화의 대상이 특정 국립대학 전체가 아니라 그 중의 일부 단과대학 또는 분교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독립학원'은 국립대학이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대학의 일부를 독립법인으로 아웃소싱(outsourcing)하여 이사회와 지도 아래 학교장 책임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새로운 모델의 대학으로서, 1990년대 말부터 생겨나기 시작하여 현재 빠른 속도로 확산되어 가고 있다.

최근 중국 교육부가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교육부의 정식 비준을 통과하여 설립·운영되고 있는 독립학원은 전국적으로 모두 318개 교이다. 1990년대 말부터 생겨난 독립학원이 이처럼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하여 불과 몇 년 사이에 중국 고등교육의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게 된 것이다.

독립학원이 이처럼 급속도로 팽창하게 된 배경 또는 이유는 다음의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하나는, 독립학원이 고등교육 규모의 확대와 국가재정 투자의 부족 사이에 존재하는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묘안 중의 하나이고, 두 번째는 독립학원이 이른바 "붉은 모자(紅帽子)"를 쓴 사립대학으로서 현 단계 중국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대학모델이기 때문이다.

〈표 3〉 각 지역별 독립학원 현황

지역	학교수	지역	학교수	지역	학교수
북경시	4	안휘성	10	중경시	7
천진시	10	복건성	9	사천성	12
허북성	17	강서성	13	귀주성	8
산서성	8	산둥성	12	운남성	7
요녕성	23	하남성	10	섬서성	12
길림성	11	호북성	31	감숙성	5
흑룡강성	9	호남성	15	영하 회족자치구	1
상해시	5	광둥성	17	청해성	1
강소성	26	광서 좡족자치구	9	신장 위구르자치구	5
절강성	20	해남성	1	총 318개교	

※자료 : 중국 교육부 홈페이지의 “獨立學院名單”(2007. 4. 4) 참조.

우선, 독립학원은 민간자본의 유치가 고등교육 규모의 확대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부족이라는 난제를 해결하는 좋은 방법의 하나라는 점을 보여주었다. 1999년 당 중앙과 국무원은 중국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과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낮은 고등교육 이수율(2004년 현재 고등교육 순 입학률 19%)을 일정 수준 이상(2020년 목표 40%)으로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아래 고등교육 규모의 대폭적인 확대를 결정하였다. 고등교육 규모의 확대를 위해서는 대학·학과의 신·증설, 입학정원의 증원 등이 필요한데 여기에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된다. 하지만 정부의 교육 투자에는 한계가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매우 효과적인 방안 중의 하나가 바로 민간자본을 고등교육 분야에 유입하는 것이었고, 그 모범을 보인 것이 독립학원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 정부에서는 국립대학의 일부를 민영화하는 이 유례가 없던 실험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고 나섰다.

다음으로, 독립학원이 급격히 팽창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요인은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과정 중에 있는 중국 사회의 특수한 사정이다. ‘사회주의 시장경제’라고 하는 현 단계 중국의 사회·경제적 상황 하에서는 완전 국유제나 완전 사유제 양자 모두 사회적으로 수용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대학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까지의 국립대학은 경직되고 비효율적이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새롭게 생겨나고 있는 사립대학은 아직 사회적 신인도가 낮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생존 및 발전가능성이 가장 높은 모델로 환영받는 것이 이른바 ‘붉은 모자’를 쓴 사립대학, 즉 기존 국립대학의 명패를 달고 사립대학처럼 운영되는 독립학원이다. 국립대학의 안정성과 높은 인지도를 기반으로 민영대학의 장점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모델의 대학이 바로 독립학원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독립학원이 국립대학의 일부를 민영화하는 미증유의 실험이기 때문에 아직 그 운영에 상당한 혼란과 문제점이 존재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예컨대, ‘규정(일반대학의 3배) 이상의 과다한 학비 징수’, ‘정원을 초과한 학생 모집’, ‘입학전형기준의 무원칙한 적용’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원칙적으로 투자 원금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영리나 돈벌이를 목적으로 독립학원을 설립하는 경우도 있어 대학을 기업화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립(國立)과 민영(民營)의 장점을 모두 갖춘 독립학원은 중국 정부의 고등교육 확대 정책과 맞물려 앞으로도 상당한 정도로 팽창을 계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5. 질량공정

11·5, 즉 제11차 5개년 계획기간(2006~2010년)동안 중국 정부는 고등교육개혁의 중점을 '교육의 질 향상'에 두겠다고 천명하였는데, 이러한 배경 하에 추진되기 시작한 또 하나의 대학교육개혁 프로젝트가 바로 '질량공정(質量工程)'이다. 2007년 1월의 언론발표회에서 중국 교육부 부부장 오계적(吳啓積)이 밝힌 바에 의하면, 11·5 기간 동안 중국 교육부에서는 총 25억 위안(한화 3,250억 원 상당)을 고등교육의 질 향상 사업에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질량공정'에는 그동안 이룩한 하드웨어적 측면의 개혁성과에 기반하여 이제 본격적으로 대학교육의 소프트웨어적 측면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 '질량공정'에는 '6대 조치, 7대 시스템, 9대 목표, 10대 목표치'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6대 조치'란 '질량공정'을 통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할 6개 방면의 사업내용으로 ① 전공 구조의 조정과 전공 인증, ② 교육과정·교재의 개발과 자원 공유, ③ 실천적 교학 및 인재양성모델의 개혁과 혁신, ④ 수준 높은 교수진의 건설, ⑤ 교학평가 및 교학상태 관련 기본수치의 공개, ⑥ 서부지역 대학에 대한 맞춤형 지원 등이 그것이다.

다음으로, '7대 시스템'이란 '질량공정'을 추진하는 동안 구축하고자 하는 7개의 시스템으로 ① 전공설치 예측시스템, ② 교학 기본상태 수치통계 시스템, ③ 대학영어 및 온라인 교육·온라인시험 시스템, ④ 온라인 교육자원 관리와 질 감독 시스템, ⑤ 우수 교육과정 공유시스템, ⑥ 입체화 교재 디지털 자원시스템, ⑦ 평생학습 서비스시스템 등이다.

그리고 '9대 목표'란 '질량공정'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다음과 같은 9가지의 목표를 말하는 것이다. ① 정보화 수단 및 기술을 인재양성에 광범위하게 응용하고, 현재의 인재양성모델을 개혁하며, 교육과정과 도서, 실험설비 등 우수자원의 전국적 공유를 실현한다. ② 초보적 수준에서 전공 설치와 사회수요의 연계를 추진하고, 전공 설치예측 시스템을 구축한다. ③ 자주적 학습·연구형 학습의 전개와 실천교학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여 학생의 학습 및 연구역량을 제고하고, 학생의 조작능력과 혁신정신을 배양한다. ④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영어교육을 실시하여, 4년 후에는 60% 이상의 대학 학부 졸업생들이 영어로 듣고 말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한다. ⑤ 각종 과학기술과 건강한 체육단체 및 동아리활동을 추진하여 조화로운 캠퍼스를 건설하고 학생들의 사회주의 인문정신과 혁신정신을 배양한다. ⑥ 일군의 우수교수진을 육성하여 강의 질을 개선해 나간다. ⑦ 초보적 수준에서 온라인교육의 공공 서비스체계를 구축하고 일반대학의 학부교육과 온라인교육의 교육과정체계를 연계시킨다. ⑧ 대학교육의 질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제도를 지속적으로 정착시켜 나가며, 평가의 수단과 방법을 개선해 나간다. ⑨ 맞춤형 지원을 통하여 서부지역 대학을 위한 교수진과 교학 관리간부진을 육성함으로써 고등교육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한다.

마지막으로, '10대 목표치'는 '질량공정'을 통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이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10가지로 수치화한 것으로 ① 15,000명의 학생이 자주적으로 혁신적인 실험을

전개하도록 지원하고, ② 10,000종의 질 높은 교재를 개발하며, ③ 3,000종의 국가급 우수교육과정을 개발하고, ④ 3,000개의 특색 있는 전공을 개발하며, ⑤ 3,000명의 교수와 관리간부가 서부 지역 대학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및 교류를 추진하도록 지원하고, ⑥ 1,000개의 국가급 교학단체를 선정하며, ⑦ 500개의 실험교학 시범센터를 건설하고, ⑧ 500개의 인재양성모델 혁신 실험구를 건설하며, ⑨ 500개의 국가급 2개 국어교육 시범교육과정을 운영하고, ⑩ 500명의 국가급 명교수를 선정한다는 것 등이다.

이와 같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질량공정'은 대학교육의 소프트웨어적 측면에 대한 개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것은 중국의 대학교육개혁이 대학교육의 질 향상 또는 대학의 교육력 제고라는 보다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III. 맺음말

1990년대 이래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는 중국의 대학교육개혁은 이미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중국의 대학교육개혁은 향후 다음과 같은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기존의 단과성 대학들을 무분별하게 종합성 대학으로 합병해 나가게 되면 특성화된 대학교육의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92년 이후의 고등교육체제 구조개혁은 명백하게 종합성 대학의 건설을 지향하고 있다. 이것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여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일류대학 건설에 유리한 측면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기존의 특성화된 전문인재의 양성이라는 단과성 대학의 장점을 훼손하는 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전 계열을 고루 갖춘 수준 높은 종합성 대학을 육성하는 가운데서도 소규모의 특성화된 단과성 대학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거시적으로 조정·관리해 나가는 것이 중국 고등교육체제 구조조정 of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여러 대학이 합병하여 탄생한 대학들을 진정으로 하나의 통합된 대학으로 거듭나도록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이다. 전국적인 대학 합병 바람 속에서 중국에서는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많은 수의 대학이 대규모로 합병을 진행하였다. 그런데, 이렇게 하여 생겨난 수많은 합병 대학들이 단순히 이름만 합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의 새로운 대학으로 재편되었는지는 의문으로 남아 있다. 즉, 대학 합병으로 인하여 생겨난 많은 다(多)캠퍼스 대학(multi-campus university)들을 실질적으로 융합하고, 중앙집권과 캠퍼스별 분권의 조화를 이룩하며, 참여 대학들이 합병 대학의 목표와 비전에 대하여 인식을 공유하고, 합병 참여 대학들 내에 존재하는 중복학문 분야를 조정하고 재배치하는 문제는 단기간에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내외 다 캠퍼스 대학들의 대학 운영 사례에 대하여 광범위한 자료 수집과 조사·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작금의 고등교육개혁을 추진하는 중요한 동력 중 하나인 대학교육의 시장화 또는 산업화 논리의 맹점을 보완하는 문제가 중요하다. 1990년대 이후 중국에서는 고등교육의 산업화를 공식적으로 표방하기 시작하였고, 이미 중국의 고등교육은 시장의 문턱에 들어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 환영받는 상품에 투자가 집중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부 명문대학과 중점학문 분야에 교육 투자가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명분으로 각종 평가를 통한 재정 지원이 일반화되면서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행정적 통제가 더욱 강화되어 가는 모순을 낳고 있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대학과 구성원들은 '돈벌이'에 지나치게 매달리는 풍조를 보이고 있으며, 불균등한 소득구조 하에서 경제적 격차가 교육 격차로 이어지면서 저소득·빈곤지역·계층의 고등교육 이수기회가 더욱 요원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시장과 국가, 자율과 통제, 효율성과 공공성, 선택과 균형, 내재 가치와 외재 가치 등 고등교육의 균형적 발전을 추구할 수 있는 시각과 논리를 재정립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참고문헌

- 박종배(2005). “중국 고등교육 개혁의 동향과 전망: 대학 합병을 중심으로”, 2005년 춘계 학술대회 자료집, 한국교육학회.
- (2006.10.5). “산학협력의 중추: 학교기업과 대학과기원”, 교육정책포럼, 한국교육개발원.
- (2005.11.10) “일류대학 건설 프로젝트: ‘211공정’과 ‘985공정’”, 교육정책포럼, 한국교육개발원.
- (2005.9.1), “국립대학의 민영화 실험, 독립학원”, 교육정책포럼, 한국교육개발원.
- 來茂德 主編(2004). 獨立學院: 中國高等教育發展的新探索-以浙江大學的兩箇獨立學院爲案例, 浙江大學出版社.
- 庄寧·楊小鵬 編著(2005). 大學科技園的建設與發展, 中國水利水電出版社·知識產權出版社.
- 張朔·王小梅 主編(2003). 合併院校實質性融合與跨越式發展, 武漢大學出版社.
- 中國教育年鑑編輯部(2004). 中國教育年鑑.
- 기타 중국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edu.cn/>)의 관련 자료 및 〈中國教育報〉 등의 신문 보도 자료.

박종배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교육학 석사·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선임연구원과 군산대학교 교양교직과 교수를 역임하였으며, 현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는 『0126 멀티미디어와 인문학 교육』(공저), 「중국 대학평가의 동향과 전망」, 「중국의 대학입시 제도: 3+X와 특별전형을 중심으로」, 「기본 국책의 하나가 된 중국의 역사교육」 등이 있다.